

청.장년 성경공부

고린도전 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조 블레어 (Joe Blair)
알렌 리즌 (Allen Reasons)
스테판 핫필드 (Stephen Hatfield)
찰스 월튼 (Charles Walton)
자넷 버튼 (Janet Burton)
트레이시 허벨 (Traci Hubbell)
게리 롱 (Gary Long)
찰스 길드웰 (Charles Glidewell)
로비 배러트 (Robby Barrett)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판권소유 © : 2012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 4판, 196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Management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1과 ~ 11과) 번역
새누리 교회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12과 ~ 13과) 번역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2년 2월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온라인 성경주석. 좀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성경주석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짐 데니슨 박사가(The Center for Informed Faith 회장, 텍사스주총회 신학자) 저술 했습니다.. 1-866-249-1799 로 전화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e-mail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전자포맷(PDF) 파일만 가증합니다. 개인용으로는 6불이고, 5명이 그룹으로 사면 25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무료 배송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1-866-249-1799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 더 자세한 인도자 지침서를 원하시면 1-866-249-1799 로 전화하셔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주문은 5불, 다섯 명이 그룹으로 사면 20불입니다.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 성경공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조 블레어 (Joe Blair) 1과에서 3과까지의 "성경주해" 를 저술했다. 블레어 박사는 텍사스 휴스턴에 소재한 휴스턴 침례대학교의 기독교학과 철학 교수이다. 그는 또한 테네시 잭슨에 소재한 유니언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루이지애나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사로서 사역했다. 그는 루이지애나 테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Th. D)를 졸업했다.

알렐 리즌 (Allen Reasons), 4과에서 6과까지의 "성경주해" 저자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헌팅톤에 소재한 5번가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리즌 박사는 또한 팔머 신학교의 부교수로 섬긴다. 그는 이전에 텍사스와 미저리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했었다. 그는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아내 로리와 함께 두 명의 자녀, 캐더린과 프레스톤을 두었다.

스토판 하트필드 (Stephen G. Hatfield), 7과에서 9과까지의 "성경주해" 저자이다. 텍사스 루이스빌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이다. 하트필드 박사는 과치타 침례대학교 (B.A)를 졸업하고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를 졸업했다 (M.Div, Ph.D). 그는 또한 B.H. 캐럴 신학연구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찰스 월튼 (Charles Walton) 10과에서 13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저술했다. 월튼 박사는 루이지애나 베이튼 루지 출신이며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텍사스 침례 회중교회의 목사로서 40년을 사역한 후 최근에 은퇴했다. 아내 브렌다와 함께 두 명의 성장한 자녀와 두 명의 손자를 두었다. 그들은 월튼 박사가 콘로 경찰서의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텍사스 콘로에 가정을 꾸리고 있다.

자넷 버튼 (Janet Burton) 1과에서 4과까지의 "교수계획" 을 저술했다. 그녀는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며 기독교 교육가, 저술가, 그리고 컨퍼런스 리더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수많은 BAPTISTWAY® 성경공부 교재들을 저술했다.

트레이시 허벨 (Traci Hubbell), 5과에서 6과까지의 "교수계획" 저자이다. 텍사스 알링톤에 있는 싸우쓰 옥스 침례교회인 그녀의 가정교회에서 독신 사역, 어린이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다.

게리 롱 (Gary Long)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7과에서 8과까지의 "교수계획"을 저술했으며 7과에서 8과의 학습 공과도 저술했다. 게리는 메릴랜드 게이셔버그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서 목사로 시무하며 이전에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윌로우 미도우 침례교회를 섬겼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사역했다.

찰스 글드웰 (Charles Glidewell) 9과와 10과의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교수 계획"을 썼다. 그는 텍사스 로탄에 있는 크로스 로드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텍사스 애블린에 있는 록스톤 신학교에서 M.Div 를 취득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로비 배럿 (Robby Barrett) 11과에서 13과까지의 "교수 계획"을 썼다. 로비는 텍사스 아마릴로의 제일침례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시무한다. 그는 BAPTISTWAY PRESS®에서 수많은 성경공부 교수 계획들을 저술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안정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생용 공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학생용 공과의 저자들

	학습 일자		
1과	_____	하나 되기	8
		(고린도전서 1:1-17; 3:1-4)	
2과	_____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라	14
		(고린도전서 5:1-13)	
3과	_____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20
		(고린도전서 7:1-17, 25-35)	
4과	_____	삶의 회색지대에서는 지혜롭게 살아라.....	26
		(고전 8:1-13; 10:23-33)	
5과	_____	올바른 성령의 은사 사용	33
		(고린도전서 12:1-14; 12:27—13:3)	
6과	_____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라.....	38
		(고전 15:3-20, 35-44, 50-57)	
7과	_____	당신의 어려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44
		(고린도후서 1:1-11)	
8과	_____	얽힌 관계를 풀어라.....	50
		(고린도후서 2장 1:12-2:13)	
9과	_____	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	56
		(고린도후서 2장 2:17-3:6; 4:1-6)	
10과	_____	영원한 안목으로 보는 삶.....	62
		(고린도후서 4: 7-5:10)	

11과	_____	사역의 동기.....68 (고린도후서 5: 11-6:2)
12과	_____	주는 것에 부요한 자가 되라.....75 (고린도후서 8:1-15; 9:7-8;11-15)
13과	_____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82 (고린도후서 12:1-10)

[제 1 과]	하나 되기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전서 1:1-17; 3:1-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전서 1:1-4:19</p>	<p>학습주제 그리스도인이 불화, 분열, 질투,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리가 먼 일이며, 영적 갓난아이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어떻게 하면 분열, 불화, 질투, 싸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분열, 불화, 질투, 싸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성경은 말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창 1:1-2:3).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다 (출 20:1-17). 히브리서 1:1-2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언자와 최종적으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하셨다고 진술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1:1).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참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것처럼 그는 사소한 말 싸움으로 인해 교인들을 분파로 나누게 했던 한 교회를 대면했다. 사람들을 분파로 나누게 했던 이유들은 내분, 사색적인 지혜 운동, 영적 미숙, 타락적인 행동,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여성 지도자들의 행동들, 주님의 만찬, 영적 은사들, 그리고 부활을 포함한다.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의 배경은 내분을 묘사하고, 지혜 운동을

고린도전.후서, 불안정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대면하고, 그들의 영적 미숙을 묘사하고, 교회를 위한 사역적 행동들을 촉구한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말을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들이 당연한 문제들에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하는 말들을 사용했다.

본문 해석

함께 성도 됨 (1:1-3)

1:1. 바울은 송신자의 신분을 먼저 밝히는 그리스 서신의 양식을 따르고, 자기의 이름에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더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여 행동했고 말을 했다. "소스데네"는 이 서신을 함께 보낸 인물이다. 소스데네는 아마도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 책임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전 1:2) "형제들"이었다.

1:2-3. 바울은 이제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성도"이다, 즉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다. 거룩의 개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이다.

교회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와 권위를 놓는다.

동정과 사랑으로 (1:4-9)

바울은 자주 그의 서신들에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로마서 1:8-15; 빌립보서 1:3-11).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뒷 부분에서 매서운 말들을 했지만, 먼저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 의해 "온갖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고전 1:5; 1:18--4:21을 보라),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 (1:7; 12:1--14:40절을 보라) "풍성"한 자들로서 보았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근원이시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실망스러운 보고 (1:10-11)

적대, 싸움, 그리고 시기는 그의 백성들을 통한, 그리고 그의 백성들 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숨막히게 한다. 바울은 후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한다 (고전 12:27). 그 몸은 분열이 일어날 때 진통을 겪게 되며 인간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치유가 필요하듯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의 사람들"로부터 교회 내부의 분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그 몸의 분열을 멈추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의도했다.

분파 (1:12-13)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았는데,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다(11, 12절). 즉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7회를 설립한 바울,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 사도 중의 주장이었던 베드로를 각각 추종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 서로 자기 파를 자랑하며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 분쟁을 일삼았던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신입 교인들에게 참례를 줌으로써 자파의 세력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3절).

"그리스도" 파는 그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분파였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료 교인들보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인간으로 존재하신 사실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들을 방언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고전 12--14장).

1:13.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1:1-3) 한 분이시며, 모든 성도는 그 아래에서 한 자매요 한 형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쟁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힐문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십자가에 못 박혔으며....참례를 받았노요. 이는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마도 당시 각 파당 사람들은 자신이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을 신격화 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어떤 사람도 구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인도자 되시고 지도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교리면, 즉 십자가의 구속과 의식면. 즉 참례에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주이심을 강조하여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분쟁을 종결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 (1:14-17)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이전에 가리켰던 것처럼 바울은 항상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예수께 가지고 갔다. 바울은 불과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한 것을 잘 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 것에 집중되기를 바랐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놓으셨다. 이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섬김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를 섬기는 것이지 자신을 섬기거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에 의해, 예수님의 섬김 아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의 교회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미숙함을 대면 (3:1-4)

바울은 "육신" 과 "신령" 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구분한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존재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 인간으로서의 전인격 -- 매일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부른다. "육신"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3:1)로 지칭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믿음의 성숙한 음식을 먹기 보다는 갓난 아이들의 음식밖에 먹을 수 없는 미숙한 "어린 아이들" (3:1)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유아같은 모습을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 기강을 잡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바울이 서신 서두에서 진술한 "성도"라기 보다는 (1:2) 단지 "인간"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들의 이기적인 인간 문제는 그러한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강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1. 다음 연구 주제를 고린도전서 6개과를 공부할 때 사용하도록 잘 보이게 준비하라. 포스터 보드를 위 아래 둘로 구획을 나누라. (고린도후서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윗 부분에 다음 제목을 써라: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고린도전서: 보고와 질문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한쪽 구획에 6개과의 제목과 본 단원에 사용되는 성경 본문을 써라. 두번째 구획에 두꺼운 종이를 만든 교회를 잘라서 붙여라;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갈래로 찢어서 붙여라.

2. 사람들이 도착할 때, 종이를 준비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의 전임 목사님 (혹은 개척 목사) 집을 방문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한다. 어떤 정보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조언, 혹은 상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도록 조심하라.) 자원자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

3. 이 과의 학습목표를 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 됨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학습인도

4. 반원들에게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지도를 열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찾게 하라 (마리 사도바울 전도여행 지도를 준비해도 좋다). 그리스 해협 위에 있는 고린도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터키 서부 해안 가까이 있는 에베소를 찾아라.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는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라 (고전 16:19). 사도행전 18:1-8절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기초에 관한 3분 정도의 요약은 반원 중 한 사람이 준비하게 하라. 다음 질문들에 답하게 하라 (좀더 많은 정보는 학습공과 "하나 될 것을 촉구함" 부분을 참고하라).

>> 바울 시대에 고린도와 같은 항구도시의 도전들은 무엇이겠는가?

>>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고린도 교회도 회심한 이방인들로 가득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문제들이 그 회중 안에서 야기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 거기에 있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 어린 교회는 어떤 도전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린도 전서 16:19-21절에서 바울의 온화한 인사를 읽어라.

5. 그 배경을 생각하며 반원 중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1-3절을 소리 내서 읽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이 4-9절을 계속해서 읽게 하라. 질문하라, 바울은 그 어린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어떤 것들을 확증하고 있는가?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감사를 주목하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6. 반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찾으면서 1:10-17절을 소리내지 않고 읽게 하라. 바울이 11-12절에서 언급했던 4개의 분파를 지적하라 (이 분파에 대한 설명은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사용하라). 질문하라, 전임 목회자, 혹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네 분파의 교리적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13절과 17절에 나타난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분파들은 위험해지고 있는가? 학습공과에 나오는 3번, 4번 질문을 참조하고 질문하라.

7. 두 개의 팀으로 나누라. 한 팀에게 고린도전서 1:17-20절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교회에 위험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하라. 다른 팀에게는 26-30절을 읽으면서 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동등한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게 하라. 반원들의 답을 좀더 풍부하게 하려면 학습공과 "막간"의 내용을 참조하라.

8. 반원중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1-4절을 소리 내서 읽게 하라. 질문하라,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이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들과 새로운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노인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적용격려

9. 요한복음 17:20-23절의 하나 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라. 반원들이 종이에 "하나 됨을 위한 기도"를 쓰게 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질문 2번과 4번을 읽고 반원들이 대답하게 하라. 대답을 듣고 그 대답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p>[제 2 과]</p>	<p>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라</p>
<p>핵심본문 고린도전서 5:1-13</p> <p>배경 고린도전서 5:1-13</p>	<p>학습주제 교회는 세상 저편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훈련받는 공동체이다.</p> <p>탐구질문 교회는 어떻게 바리새인적 위선이 없이 정결하게 훈련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교회 안의 정결한 삶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요약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파악한다. 아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생각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5:13-14). 소금이 썩지 않게 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올바르게 의롭게 되도록 돕는 방부제와 같다. 빛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돕는 횃불과 같다.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는 교회 내부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도 침투적인, 도덕적 영향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도덕적으로 질서가 잡혀야 한다. 교회가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곳이지만 옳은 것에 대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 도덕적 문제점들을 대면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는 사악한 도시로 평판이 나왔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고린도는 전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고린도전.후서, 불안정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 이후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시이저에 의해 도시로서 재건되었다. 그 도시는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다.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은 도덕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행습들이 다양했다. 어떤 종교는 성적 난교를 권장했는데, 이는 그 도시를 특징지우는 것이었다. 실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세계적 문화 를 돌아 볼 때, 미국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이 작은 교회는 그 문화 속에서 소금이요 빛이었다. 하지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옛 행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타락적 행동이었다; 그들은 옛 삶을 교회의 삶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다. 우리는 바울이 한 가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제를 대응하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 문제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문 해석

나쁜 소식이 돌아다니다 (5:1-2)

글로에의 사람들로 부터 (고전 1:11) 들은 나쁜 소식 중에 교회의 한 남자가 그의 계모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음행"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전 5:10). 교회가 그런 행동을 용납했다는 것이 바울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러한 행동은 교회 밖의 그리스와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대 법 또한 그러한 비정상적 행동을 금지했다. 레위기 18:8, 29절에서 이런 죄에 대한 벌은 그 지역에서 내쫓는 것이었고, 신명기 27:20절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는 교회가 세상 문화에 적응하려는 태도였다. 고린도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굴레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율법과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교만했다 (고전 5:2). 그들은 바울이 선포했었던 값 없는 은혜를 자신들의 육욕을 채우는 일에 맞추기 위해서 왜곡했다. 이들은 어쩌면 "바울" 파 (1:12)일 수도 있다. 그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남용했다.

그 남자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애통이었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레위기 23:27절의 고행을 의미했을 것이다, 거기에서 속죄일에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 자신을 "부인"하고 -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덧가를 치르는 애통이 안과 밖으로 취해졌어야 했다. 내적 대응이 그 문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짐으로써 바깥으로도 드러나게 했어야 했다. 바울은 둘 모두를 촉구했고 무엇이 외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인지 말할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바울이 권위를 행사하다 (5:3-5)

5:3. 바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관직에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교회의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을 언급하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것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역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외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의 사역 (고전 1:17; 2:1-5) 은 그 교회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 그들은 바울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5:4.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께 교회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가 이 남자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교회가 도덕적인 결단을 하도록 촉구했던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가운데 있는 그들과 거기에 "함께 모여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서신은 회중 가운데 읽혀지는 것이었다; 복사를 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 불가능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기록된 글보다 더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은 물리적 거리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였고,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5:5. 한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의존 관계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실로 어떤 조직화된 공동체나 문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끔찍한 선고였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밖으로 추방되는 것은 그 남자를 교회의 보호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몸으로부터의 추방은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 추방된다는 것은 그 남자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 현격한 차이는 그를 충격에 휩싸이게 해서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필요를 깨닫게 할 것이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영"은 이 경우에 그 인격 전체의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교회는 그 영 안에 존재한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교회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재적 존재이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새롭다! (5:6-13)

5:6-8. 누룩은 때로 유대인의 사상에서 악이 끼어든 것을 상징했다.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듯이 작은 악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울은 유월절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희생 양과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빵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희생 양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기억나게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해주는 것이었다.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빵은 또한 그 구원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것, 혹은 악(누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간주했다; 즉, 그들은 희생양되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누룩을 제거하신 예수님에 의해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것을 적용해볼 때 계모와 음행을 한 그 남자는 악한 누룩이다; 교회는 누룩이 제거된 것이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 \

5:9. 바울은 그들이 "음행"에 관련되지 않도록 경고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윤리적 모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10절에서 기록했던 다른 죄들보다 성적인 죄를 더 큰 죄로 간주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적인 난교는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만연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죄악이 성적인 죄악들이었던 것이다. 다른 죄들은 일반 세상에 의해서도 정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적인 죄는 아니었다. 결국, 바울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 특별한 경고를 해야만 했었다.

5:10-13. 교회가 세상과 함께 섞여 살며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반면, 그들은 해악을 끼치는 어떤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형제나 자매를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회들 중의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도적적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들을 스스로 지시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과 교회가 교회 자체의 수량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13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17:7절을 인용했다. 역시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그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속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육신적인(사탄)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돌아 올 소망이 있는 것이다.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밀가루 반죽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반원들에게 물어보라. 이 이야기를 나누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4000년 전, 슈퍼마켓에서 손 쉽게 효모를 살 수 있었던 때가 아닌 - 사람들은 "발효된 작은 덩어리"로 빵을 부풀렸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레서피는 인터넷에 풍부하게 올라있다. 누구나 따뜻한 물과 밀가루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실내 온도에 며칠 동안 놔두고, 밀가루와 물을 매일 더 하는데, 야생 효모가 살아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덩어리는 어떤 양만큼의 맛있는 빵도 만들 수 있는 "스타터"가 되는 것이다. 스타터는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종종 좋아하는 레서피에 따라 만든 스타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한다.

2. 오늘 수업이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 그 "스타터"를 타락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학습주제, 학습목표, 그리고 들어가기로 나누라. 반원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동안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라.

학습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고전 5:1-2절을 읽게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본 서신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게 하라.

4. 각 사람에게 종이 한 장과 마커펜, 혹은 크레용을 나누어 주라. 한 쪽에 큰 글씨로 "찬성" 이라고 쓰게 하고 반대 쪽에는 "반대" 라고 쓰게 하라. 이 내용을 프린트 해서 칠판에 붙여라: 교회를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들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아까 종이에 썼던 것을 들어서 표시하게 하라. 자원해서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라. 이 두번째 내용을 칠판에 붙여라; 타락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다. 똑 같은 방법으로 반원들이 그들의 의견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자원해서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라.

5. 고린도전서 5:3-8절을 읽고 반원들은 바울이 이 추악한 타락에 대해 무엇이라고 조언했는지 주목하게 하라.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교회의 회원을 추방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하여금 회개하고 타락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반원들이 이 진술에 대한 의견을 앞서와 같이 나타내게 하고, 몇 사람이 그 이유들을 설명하게 하라. 학습공과 "독: 조심스럽게 다루다" 를 요약해서 말하라. 1번의 빵 부풀리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하라:

>> 작은 덩어리의 발효 밀가루 반죽이나 누룩 (타락)은 전체에 스며들어 부풀리게 할 수 있다.

>>만일 올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스타터는 불순물이 형성되어 새로운 발효 반죽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내버려야 한다.

>>성서 시대에, 누룩은 오염을 상징했다. 그래서 유월절의 거룩한 축제를 위해 각 가정들은 누룩을 제거해야 했다 -- 그들의 "스타터"가 버려져야 했다 (출 12:15). (학습공과의 '참고' 부분에 나오는 "언약 백성"을 참조하라.)

6. 한 반원이 고린도전서 5:9-13절을 읽을 때,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찬성/반대 표를 보이게 하라. 그것에 대해 함께 토론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써라: 오늘날의 교회들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훈련된 도덕적 삶의 등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격려

7. 마태복음 18:15-17절을 읽어라. 질문하라, 예수님의 계획은 고린도 전서 5장에 있는 까다로운 가르침들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의 교회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p>[제 3 과]</p>	<p>결혼을 했던 독신으로 살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p>
<p>핵심본문 고린도전서 7:1-17, 25-35</p> <p>배경 고린도전서 7장</p>	<p>학습주제 결혼을 했던 안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p> <p>탐구질문 결혼을 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 모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결혼해서, 그리고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요약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묘사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고린도전서 본론의 후반부인 7:1-16'4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설립자요 사도인 바울에게 자신들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바울이 그와 관련된 신학적 원리와 실천 방안을 각각 답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기사의 시작 부분인 본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시한 첫 문제인 미혼 및 독신 성도의 결혼과 재혼 및 결혼한 성도의 부부 생활 등 제반에 관한 신학적 원리와 그에 의거한 실천 방안을 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포괄적인 교훈 전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 아님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즉 바울은 이제 초대 교회가 갓 태동되어 이방 땅에 그 연약한 뿌리를 내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가고 있어서 기 실 모든 성 도가 전도자로서 의 투철한 삶을 살아야 할 것 이 더욱 요청 되는 동시에 전제국적 박해가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특수한 상황의 A.D.50년대의 관점에서 결혼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한 것이지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전시대 보편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바울은 물론 모든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때였는바 이 시기의 결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자연히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정치·사회적 신분, 심지어 교회의 외적 형식 등,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문제도 이 세상에 국한된 일시의 상대적 문제인 바, 또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신앙생활에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인 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결혼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일 뿐이므로 결혼을 신앙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엄정한 원칙 하에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문 해석

결혼의 상호나눔 관계 (7:1-7)

7:1.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또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썼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주석가들은 그 진술이 성적인 관계나 혹은 단순히 결혼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결혼에 관하여서는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곤 했었다. 다른 교인들은 결혼 생활에서도 성적인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다. 바울은 그 두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했다.

두 가지 가능한 자료가 혼동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아마도 어떤 사상들은 결혼을 더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던 키니크 학파 (Cynic 학파, 견유학파) 의 영향 아래서 왔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교회의 영적 우월파들이 (고전 12장을 보라) 결혼에서조차도 성적 연합은 악행으로 믿었을 것이다.

7:2. 바울은 결혼이 좋은 관계라는 유대적, 기독교적 관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약한 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만일 결혼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바울은 성적으로 쉽게 유혹당하는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각각은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라는 단어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 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각각은 서로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헌신이 결핍된 결혼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 한 몸으로 서로 헌신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된다. 그것이 또한 성적인 연합이 강조하는 바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7:3-4.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의" 권리가 있다, 혹은 우리는 결혼생활의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성적 관계를 포함하지만 사실 결혼 관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어느 한 쪽이 자기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권리들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결혼한 부부는 하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했고 서로에 대해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토론 가운데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아내의 동등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7:5-6.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 부부간의 동의하에 잠정기간 성적 관계를 금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길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난교는 그 도시에 널리 퍼져있었고, 부부는 그들의 결혼관계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결혼은 모든 국면에서 조심스럽고 일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그 도시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위협이었다. 하나 됨에 대한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혼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서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서 존중 해주어야 한다.

7:7. 바울이 그의 독신을 찬미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때로 바울이 결혼을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그의 유대교적 가르침의 배경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은 분명히 결혼을 높이 평가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을 정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 19:1-6). 하나님께서는 결혼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키신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

바울의 독신은 그를 위해 옳은 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즉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은사들을 받았고, 그것은 결혼도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는 그의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 2:24절; 마 19:1-6).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7:8-11)

7:8-9.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성적으로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이전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만일 그들이 결혼할 필요가 있다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독신은 종종 우리의 현재 문화 속에서는 의심스럽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독신은 결혼처럼 하나의 선택이다.

7:10-11. 그들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유 안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자유를 이용해서 남편의 우월주의를 벗어버리기 위해 결혼 관계를 깨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헌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계명"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6-9, 11-12절, 누가복음 16:1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되풀이 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리스도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한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책임이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다른 세속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7:12-17. 12절부터 16절까지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면을 보면 다 같이 신자일 경우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능한 반면, 불신자일 경우의 이혼은 보다 융통성이 있어서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원한다면 갈리지 말 것이나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바울은 이 권면을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바울의 말이 영감 받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바울 자신의 말도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었다(딤후 3:16). 다만 바울은 주의 절대적 명령으로서의 계시와, 권도로서의 자신의 말을 구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의 가르침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본 구절에서의 바울의 중심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결혼을 다시 하거나 기존의 결혼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비록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 생활을 보존시켜 나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은 비록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일지라도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거룩한 규범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능동적으로 파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들 (7:25-35)

본문에서는 다시금 결혼문제로 돌아가 처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처녀 본인에게 권면하는 부분이다(25-28절). 여기서 언급된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처녀는 시집을 가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그가 금욕주의자로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 바울은 결혼이 결코 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환난의 시기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인해 더 큰 환난이 미칠 것이므로(마 24:19; 눅 21:23)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여 독신을 권장한 것이다.

둘째,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는 부분이다(29-31절). 이 부분은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임박한 환난의 때와 연계하여 주어진 교훈으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신의 유익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다(32-35절). 잠시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성도의 태도를 언급한 바울은 다시 처녀 결혼 문제로 돌아가 독신의 유익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처녀가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함이다. 하여튼 바울은 독신 생활의 유익으로,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을 래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반면, 독신자는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독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두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의 일만을 위해 염려하므로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 유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결코 고린도 친인들에게 금욕이나 독신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다. 바울은 다만 결혼한 자이건 독신으로 지내는 자이건 간에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 위에 다음 주제들을 써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다.

- >>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 >> 결혼관계에서의 성생활
- >> 과부와 재혼
- >> 이혼
- >>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생활

위 주제중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 질문함으로써 공부를 시작하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 반원 중 한 사람이 학습주제, 탐구질문, 학습목표, 그리고 들어가기들 각각 읽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시키는 것을 도우실 것을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학습인도

3. 고린도전서 7:1절을 몇 가지 다른 버전으로 읽어라. 이 구절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임을 주의하라. 이 구절을 에베소서 5:25-28절에서 진술한 바울의 말과 비교하여 어떻게 이 성경구절들이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지 보여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고전 7:2-6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4절은 결혼의 상호 관계를 요청하고 있고 당시의 고린도 문화에 일반적이었던 것보다 더 여성에게 동등성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친밀함의 중요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반원들이 요약 진술하도록 하라.

5. 자원자 한 사람이 7:10-16절을 읽게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이혼을 피하게 한 이유에 대해 경청하게 하라. 반원들이 다음 구절을 읽게 하라:

>> 10절.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끝까지 유지 되기를 의도하신다.

>> 14절a: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14b. 자녀들의 앞날이 위험에 처한다.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부분으로부터 1세기 고린도의 결혼에 대한 부가적인 사실들을 나누라. 17절에 있는 바울의 요약을 강조하라.

6. 당신이 고전 7:25-31절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처했던 배경과 상황을 주목하게 하라. "임박한 환난" (7:26), "육신에 고난" (7:28), 그리고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7:28)를 주목하라.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 부분을 참조해서 그 문맥을 설명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섬김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결혼을 포기했던 바울의 긴박성을 지적하라.

7. 고린도전서 7:7-9과 32-36절을 읽어라. 이 두 구절은 독신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질문하라, 어떤 이유로 바울은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권유했는가? 독신으로 남았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가? 학습공과 말미에 나오는 질문 1과 2를 참조하라.

적용격려

8. 반원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았던 적용점들을 제시하도록 인도하라. 학습공과의 "적용 및 실천" 부분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적용점들을 제시하라. 모든 가족이 이혼, 성생활, 결혼 갈등,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들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원들이 미리 준비하게 하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제 4 과]	삶의 회색 지대에서는 지혜롭게 씨름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전 8:1-13; 10:23-3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전 8:1-11:1</p>	<p>학습주제 비록 어떤 행습이 그리스도인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그런 행습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p> <p>학습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이 분명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대응하는 원리들을 깨닫는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전의 과에서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관한 질문에 관해 바울이 분명하게 교훈을 주었던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 회중을 끌고갔던 또 하나의 이슈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해준다. 그 토론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관련된 갈등 문제로 전환이 된다.

이 서신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듯이, 바울의 진술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거의 의자에 앉아서 전화하고 있는 한 쪽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 통화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혹은 왜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렇게 말했나요....? 한 쪽만 듣는 대화는 필연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일으키는 법이다.

본문을 이해하는 것중의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대화에 대한 문맥을 발견하는 것이다. "글로에의 집"으로 부터 온 전달자들은 (고전 1:11)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오늘 수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세 장(chapter)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이슈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상을 강조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 5:1). 고린도인들은 정확하게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삶의 회색지대를 돌아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문해석

지식과 사랑의 위치 (8:1-3)

8:1. 결혼 문제에 대한 그의 대답을 마친 후 바울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영어로 읽으면 "now (이제)"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는 전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을 새로운 이슈로 환기 시켰다.

익숙한 주제로 돌아가면서 바울은 이것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것을 진술했다 (고전 1:18-31; 2:6-16). 가능성이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달 받았던 보고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지혜와 지적 우월성을 뽐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교만이었다. 어떤 구절들 (8:1, 4, 8; 10:23)은 이 스스로 잘난체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전에 그들의 지혜를 인식했었고 (2:12-16),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주장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교만한 이기주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랑은 겸손히 섬기게 하는 것이다.

8:2-3. 바울은 지식의 뼈대로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그의 주장의 기초를 단단하게 했다. 어떤 것을 아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잘못된 자존감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결핍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대한 결핍을 의미하기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때문이다.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명령은 곧 하게될 바울의 대답들에 대해 독자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 없는 지식은 사실 파괴적이고 통렬할 뿐이다.

이교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활동 (8:4-13)

8:4.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산물들이고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바 구약 성경은 이방신 또는 우상을 허망한 것 또는 거짓된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시 115:4,8; 사 41:24; 렘 10:14).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우상 숭배의 이면에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전 10:20). 바울은 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신전에 신처럼 모셔져 있는 우상들 자체는 신이 아니라 나뭇조각이나 쇠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8:5-6. 그 갈등은 거짓 신들에게 헌신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신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었다 (신 6:4). 그렇다면 그 음식은 이 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8:7-8.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허상에 불과한 신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과 관련된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 서신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대부분 음식에 관련해서 말할 때 사용했다. "약한" 양심은 그들 과거의 행습들, 가족 전통들, 두려움, 그리고 다양한 다른 장애물들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하게 했을 것이다. 비록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양심에 자유를 주었지만 (롬 9:1),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인식하기에 너무 어렵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러한 외적 선택은 하나님과의 자녀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롬 14:17). 하지만 아마도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우쭐거리며 그들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했었을 것이다.

8:9-13. 여기서 '거치는 것'은 문자적으로 거침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의미의 범죄. 곧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이유나 또는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바울의 교훈의 요점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침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진정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덕을 세우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상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신념이 어떻게 같은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롬 14:15).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자유의 포기 사상이 깃들여져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포기를 개인의 지식에 대한 이기적인 자유행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요지이다.

자유인 역할 (10:23-33)

사이에 있는 구절들 (9:1-10:22)은 바울의 주장을 더 깊게 지지하는 내용들을 제공한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증거를 기대할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교회의 사도로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체험들을 곁집어 댈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10:23-26. 개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은 그 모든 것을 행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교회를 보다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의 대원칙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유를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영적 안녕을 무시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다 (빌 2:4).

10:27-30. 고린도와 같이 불신 사회에서 신자가 극소수인 경우는 신자가 불신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런 교제를 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비그리스도인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하여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

14:1-- 15:6절의 진술과 비슷한 말로 바울은 불신자가 믿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 오도 될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0:31-33. 바울은 이 이슈에 대한 그의 요약적 진술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애매한 삶의 영역들에 대한 원리들을 제공했다.

첫째로,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 3:17). 올바른 행동은 단지 도덕적인 선 이상의 높은 평가기준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행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주목하라. 거침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셋째로, 모든 행동의 인식 결과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고전 9:19).

넷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의 본보기는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라 (11:1).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에 나오는 김선생의 이야기를 말하라. 이야기를 마친 후, 질문하라, 김선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을 해줄 것인가?
2. 본과의 학습주제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인도

3. 학습공과에 있는 "자유에 대한 질문" 자료를 제시하라. 질문하라, 우리 문화 속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와 비슷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반원들이 대답하는 것을 나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마커보드 한 쪽에 기록하라.

4. 자원자 한 명이 고린도전서 8:1-13절을 읽게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옳고 그른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폭 넓은 원리들에 주목하게 하라. 6, 8, 9절, 그리고 13절을 주목하고 반원들이 각 구절에서 원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라. 마커보드 한 쪽에 각 대답들을 기록하라. 원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고전 8:6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진술한다.

>> 고전 8:8은 먹는 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진술한다.

>> 고전 8:9은 죄 없는 행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 고전 8:13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하라는 진술이다.

5. 반원들이 마커보드에 기록한 것들 중에서 토론할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마커보드에 두 번째 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6. 고린도 전서 10:22-23절을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읽게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에 주목하게 하라. 위에서처럼, 반원들이 23, 24, 27절에서 각각 원리들을 발견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종전에 마커보드에 기록한 원리들 아래에 이 원리들을 더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유를 사랑하라"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섹션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라. 원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고전 10:23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옳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 고전 10:24절은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주의이다.

>> 고전 10:27절은 일반적인 규율로서 우리가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라는 것이다.

>> 고전 10:31절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교훈이다.

7. 5번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상황을 골라서 토론하라. 고전 10:23-33절의 원리를 반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적용격려

8. 한 사람이 로마서 14:13--15:2절로부터 관련된 구절을 읽게 함으로써 수업을 요약하라.
9. 학습공과의 질문 4번을 함께 하라. 반원들이 대답을 하기 전에 마커보드에 적은 원리들을 적게 하라.
10. 자원자 한 사람이 본 과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게 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영적 은사의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전서 12:1-14; 12:27-13: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전서 12-13</p>	<p>학습주제 도인들은 함께 받은 유산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p> <p>탐구질문 우리의 개인주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유하는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 유산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위해 나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애매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말한 뒤에 바울은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련된 교회 내부적인 질문들에 대답한다.

성도 각자는 그 출신이나 성향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은사를 받으나 그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받은 점에서는 같으며, 또한 한 예수에 의해서 설립되고 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안에 붙은 여러 지체와 같은바, 여러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유기적 통일을 이루듯이 성도 각자가 교회 안에서 받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職分)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한 목적 아래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의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

본 장에서 바울은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대신에 이러한 특별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관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바울이 대답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며 영적인 은사들의 문제가 그 하나 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적 은사의 다양성 (12:1-11)

12:1. 바울은 주님의 만찬 (11:17-34) 주제에서 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했다. 아이러니하게, 주님의 만찬은 회중 가운데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식사는 교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했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 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불화적 요소를 언급했다: 은사 문제였다. 위에 따르는 특별한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구절을 사용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다른 경우에서도 사용했었다 (롬 1:13; 11:25; 고후 1:8; 살전 4:13).

12:2-3. 고린도는 헬라 문명 속에 있던 도시로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과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했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은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후의 상태를 비교하게 하여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영 으로 말미암는 신 령 한 것을 판별하는 대 전제요 기 본 표준은 예수를 저 주하지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12:4-6. 교회 내에서 각자 받은 은혜와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다 보면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덜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교회의 머리되신 한 주님으로부터 온 직임이기 때문이다. 모든 직임은 주님께 의해 선정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사되고, 또 그렇게 행사되어져야만 한다.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일하지만 그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와 세계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다.

12:7-11.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몇 가지 은사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홉 가지의 은사들을 열거했다 (다른 은사들은 롬 12:6-8; 엡 4:11; 벧전 4:10-11을 보라).

우리는 영적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것, 특히 어떤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구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주는 퓨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영적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그 은사들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 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

방언의 이슈는 마지막에 나온다. 이 은사는 이 서신에 나오는 다른 은사들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이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논쟁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었지만 (14:1-25), 방언의 은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다. 사실, 그것은 영적 은사들의 목적인 연합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14:19).

본장에 언급된 은사는 9가지였지만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심을 본문은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 로 다양하게 보이는 성 도들의 재능은 사실상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뜻대로, 은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다. 하나님은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사 균형과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 (12:12-14)

12:12.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은사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회중을 한 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다.

12:13-1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다양한 과거들로부터 왔지만 지금은 복음의 하나 됨 속에 같은 미래를 소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들이 한 몸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전의 삶들이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 되어 동화되었음을 반영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는 구절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가능한 이해들은 회심, 주의 만찬, 은사를 받는 일, 혹은 생명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마지막 것이다. 즉 많은 성도는 한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다.

본과의 배경이 되는 부분 (12:15-26)은 몸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토론으로 계속된다. 지체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파악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때 전체에 공헌을 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손, 발, 눈, 귀 등은 은사의 다양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절과 본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함이 없으며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받은바 은사를 심분 활용하여 자기의 직임에 충실할 때 교회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 전에 이 질문을 앞에 붙여 놓아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 이익을 위해 당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붙여놓은 질문을 참조해서 반원들에게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두도록 말하라.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자, 그리고 그들의 은사, 혹은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인도

2. 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 되다" (연합하다) 와 "세우다" (유익하게 하다) 라고 쓴 것을 앞에 붙여 놓으라. 또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퍼즐 그림을 붙여 놓고 여러개의 조각들을 빼 놓아라. 퍼즐을 전시해놓으라. 빠진 조각들을 옆에 놓아라.

3. 당신이 핵심 본문을 읽거나 혹은 자원자가 읽게 하라.

4. 학습공과 첫 섹션에 나오는 "성령을 이해하기" 부분을 활용해서 초대 교회의 성령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소개를 하라.

5. 학습공과 "성령을 이해하기" 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특히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강의하라. 자원자가 붙여 놓은 단어들을 ("하나 되다," "세우다") 정의해보도록 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 되거나 세워졌었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과 그것이 하나된 몸인지 아닌지 생각하도록 인도하라.

6.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성령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의 대답은 성령이 하나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무장시키신다는 그의 설명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라.

7. 다음 성경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큰 소리로 읽어라; 고전 12:7-10; 고전 12:28; 롬 12:6-8; 엡 4:11; 벧전 4:10-11. 학습공과 말미에 나오는 질문 5를 질문하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8. 반원들이 여 놓은 질문 (1번을 보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라.
9. 2번에서 준비해놓은 퍼즐을 소개하고 몇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라. 학습공과 "모두 한 몸" 부분을 토론하라. 토론하면서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10. 반원들 앞에서 학습공과 "더 좋은 길" 섹션의 마지막 문장 "사랑은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당신이 말을 하면서 완성이 되지 않은 퍼즐의 조각들을 제자리에 끼워 넣으라.

적용격려

11. 학습공과 "적용 및 실천" 부분을 당신이나 혹은 자원자가 소리내서 읽어라.
12. 그 이야기에 대한 반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라. 별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교회 성도의 이름을 말해보도록 격려하라. 반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13.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제 6 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전 15:3-20, 35-44, 50-5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전 15장</p>	<p>학습주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 자신의 부활을 확증케 한다.</p> <p>탐구질문 이 것이 모두 일어날 일인가?</p> <p>학습목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대한 나의 소망을 증언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바울은 고린도 회중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어려움들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부활에 관련된 논쟁들에 대답했다.

바울이 전달 받았던 처음 보고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회의 분열이었다 (고전 1:10). 그 파편들이 다양하게 표면에 떠돌아 다녔다: 전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다양한 분파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다른 입장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들. 또 다른 균열은 교회 내부의 음행에 연루된 것이었다 (고전 5:1).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교회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위험에 대해 썼다.

본과는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또 하나의 주된 의심을 다룬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15:12)고 고집을 부렸다. 이 서신의 가능성 있는 기록 연대는 5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부활 사건 이후 겨우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벌써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인들과 함께 그 믿음에 대해 즉시로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근심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서신의 연대는 또한 전체적으로 태동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린도전서가 4복음서 이전에 기록된 것이므로 성서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최초로 기록된 기사이다.

본문은 초대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부활의 엄청난 중요성에 대한 가치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의미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일견을 제공해준다.

본문 해석

예수님의 부활 (15:3-11)

15:3-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었기 때문에 (15:1), 본문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부활의 진리는 바울이 그들 중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다. 이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가장 위대한 진리였다.

바울은 이 일들이 "성경대로" 실재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마찬가지로, 이는 두 곳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신명기 21:23; 이사야 53:5-12).

15:5-8. 본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다. 부활에 대한 증거에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바울이 본절에서 게바와 열 두 제자를 먼저 언급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적 증거보다 사도들이라는 공적 증거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활을 목격한 오백여 명 중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명백히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은 부활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를 믿지 않았으나(요 7:5),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변화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였다(행 15:13; 21:18; 갈 2:9).

15:9-11. 바울이 자신을 낫춘 이유는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실로 바울은 인간 됨됨이로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역에 열정을 다해 충성케 하였던 것이다. 우리 역시 진정 '나의 나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 (15:12-20)

15:12 -14. 바울은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과 그리스도의 부활 모두 서로의 실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15:6).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전한 설교는 헛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의 믿음은 바울의 설교처럼 헛된 것이 된다. 설교나 성경공부를 참된 구원의 체험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은 (롬 1:16)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진리에 있는 것이다.

15:15-18.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바울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요일 4:1).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용서는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다.

15:19-20. 만일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된 것에 바쳤기 때문이다. 최소한 비신자들은 여기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놓을 수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 부정적인 주장은 긍정적인 선언으로 바뀐다.

'첫 열매'(아파르케)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 중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서 온 개념이다 (출 22:29; 23:19).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곧이어 큰 추수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주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곧이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할 것을 암시한다.

육체의 부활 (15:35-44)

이 핵심 부분과 이전 부분 사이에 있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주장을 계속한다.

15:35-38.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했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예수님처럼 들리는 데 (요 12:24-25), 바울은 그들이 해마다 그러한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흙에서 씨가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로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가 자라서 몸이 있는 식물로 자라도록 하신 것처럼 또한 부활한 성도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정해놓으셨다.

15:39-41. 천체들, 예를 들어 해, 달, 그리고 별들은 땅에 있는 인간이나 동물들의 몸과 다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생의 몸들은 부활한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이다.

바울의 비유로부터 두 가지 적용들이 일어난다. 첫째로, 천체는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각각은 그 고유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과 별들 속에 있는 그러한 장엄함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몸들이 얼마나 놀랍게 장엄할 것인지 상상할 수 밖에 없다.

15:42-44. 땅 위에 있는 몸은 썩거나 부패하는 반면, 하늘의 몸은 상처조차 입을 수 없다. 이생에서 우리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다; 반면 내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얻게 된다. 우리는 썩어질 몸에 뿌려진 씨앗이다, 하지만 능력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는 몸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한정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본질을 즐거워하는 영이 될 것이다.

부활의 승리 (15:50-57)

자연적인 생명을 첫 사람 아담에 비유하고 영적인 생명을 후에 두번째 사람 그리스도를 비유한 뒤, 바울은 이생의 몸을 깨고 부활한 몸의 축제로 결론을 맺는다.

15:50-51.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이다. 전자는 불완전한 것이요, 죄 아래 있는 것이며, 인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완전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며,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5:52-55. 썩음'이나 '죽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사망'이라고 표현한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부활의 절대성을 확신 있게 설명한 바울은 구약 호세아 13:14을 인용하면서 부활로 인해 멸망할 사망을 향해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그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개가요 사망의 입장에서는 조롱과 모욕이다.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른 폭군이었으나, 그 절대 지배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된 것이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15:56-57. 죽음은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죄의 기반은 율법이다. 이 강력한 통치에 대한 승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같은 크기 4 조각으로 잘라라; 각 사람이 한 장씩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라. 또한 두 개의 질문을 앞에 붙여 놓아라: "이생의 삶이 다 인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종이를 나눠주고 수업을 시작하라. 붙여 놓은 질문들을 보게 하고 반원들이 그들의 대답을 쓰게하라.
2. 종이에 기록한 대답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요청하라. 이제 얼마나 자주 그들의 대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지 질문하라.
3. 시작 기도를 하라.

학습인도

4. 학습공과 말미에 나오는 질문 중에서 1번을 질문하라.
5. 학습공과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긴다" 부분을 요약 강의하라. 이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라.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6. 학습공과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학습공과 말미에 나오는 질문 2를 질문하라.
7. 반원들 중 15:3-20, 35-44절을 읽을 사람을 지정하라.
8. 학습공과 "영적인 몸들" 부분으로부터 첫 문장에 있는 질문들을 하라. 나비를 쳐다보는 두 마리의 애벌레들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 하면서 "영적인 몸들"을 요약해서 강의하라. 만일 그들이 영적인 몸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원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라.
9. 고린도 전서 15:50-57절을 당신이 소리 내서 읽거나 반원 중 한 사람이 읽게하라.
10.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부분을 요약하라. 고린도 전서 15:54-55절을 참조하는 것으로 당신의 요약을 마무리 하라.

적용격려

11.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라.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이러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질문하라.
12. 학습공과 질문 3번을 질문하라.
13. 오늘 수업이 반원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반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라.

<p>[제 7 과]</p>	<p>당신의 어려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p>
<p>핵심본문 고린도후서 1:1-11</p> <p>배경 고린도후서 1:1-11</p>	<p>학습주제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중에 넣고 계실까?</p> <p>학습목표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에 대한 바울의 접근방식을 묘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렬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느낌들을 나누었고 각 장 속에서 그의 감정들을 드러냈다.

고린도전서 발송 직후 고린도교회의 상황이 급작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본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방문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달리 고린도 교회를 친히 방문하였다. 그러나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였어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회개를 보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귀환한 후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 (고후 2:3, 9) 라는 현재는 전승되지 않은 사도서신을 디도를 통해 (7:6) 고린도교회에 발송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 결과 고린도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7:6-8).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의하여 극히 일부의 성도가 이제는 아예 바울의 사도권 및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일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여 결국 복음의 요청에 수렴되는 회개를 일관되게 촉구하는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 후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바울의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정당성 (1:12-7:16); (2)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논의 (8:1--9:15); 그리고 (3)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한 근거 및 변호 (10:1-13:14).

고린도 서신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토의 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소한 4 번의 서신을 보냈다. 눈물의 편지는 실재로 고린도 후서의 일부인가? 아니면 고린도 후서는 실재로 몇 개의 서신들이 합쳐진 것인가?

이러한 가능성들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 고린도전, 후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는 몇 개의 서신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시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신약성경 그리스어 사본에서, 고린도 후서는 현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회 역사의 1세기의 저자들은 고린도 전, 후서의 일관성을 확증해주고 있다.

본문 해석

서두 (1:1-2)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저자로 확인했다. 디모데도 함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 수신자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1)라고 발언했다. 그들은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지역 개교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바울은 교인들을 "성도," 혹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바울이 그와 고린도 교인들 어려운 감정들을 진술했던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했다.

'아가야'는 로마의 주의 하나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의 대표 도시로는 수도인 고린도를 비롯하여 아덴, 겐그레아 등이 있다.

고린도전, 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고난 가운데 평안 (1:3-11)

1:3-4.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든 평안의 근원으로 확인했다. "찬송하리로다"는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송영의 도입부다. 바울은 명확하게 그의 주제를 진술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위로"라는 형태의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다. 이 위로는 안도, 평안의 마음, 격려, 다른 사람들을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1:5-7.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들을 비극적인 체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역으로 보았다. 즉,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는데(빌 3:10, 17),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롬 8:17).

6절에서 바울은 고난과 위로의 목적을 진술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였다. 문자적으로 바울은 참을성 있게 이겨냄이라고 썼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로를 받았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취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겐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3:10절에서 그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 했다고 썼다. 그는 그의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고난과 위로에 대한 바울의 체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어졌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고후 1:7).

1:8. 끔찍한 일이 아시아에 있는 바울에게 생겼었다. 이 서신 후반부에 (11:23-29), 그는 이 구절과 관련된 다른 때의 고난과 고통을 일일이 열거했다. 바울은 그가 죽는줄 알았다. 어려움을 겪었던 목록들에 매 맞은 것들, 투옥, 자연재해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대조되어, 그는 "날마다....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도 언급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들 중의 사도와 교회 사이에 일어났었던 심각한 괴리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이 괴리는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에 왔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고린도 교인들에 행한 그의 사역의 순수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을 이용했다. 즉 그들은 바울이 고난 받는 것을 그의 사역과 섬김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했다.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1:9-10. 바울의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배우게 해주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서신의 주제들 중의 하나가 이 구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사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훌륭한 조건을 갖춘 바울은 은연 중 자기를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통감하게 하였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위로자가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난의 의의는 자기, 즉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을 의지케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히 11:19).

1:11.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빌 1:19).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 부분을 그가 시작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써 끝을 맺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는 인생 자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깨닫는 데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많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학습공과에 나오는 이야기에 반원들이 주목하게 하라. 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라.

학습인도

2. 오늘 배울 본문 말씀들을 포스터 써 붙이거나 혹은 마커보드에 써라:

당신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

고린도 후서 1:1-11

- a.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1:1-2)
- b.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1:3-5)
- c. 내일을 향한 밝은 소망 (1:6-7)
- d. 맞았으나 부서지지 않았다 (1:8-11)

3. 자원자가 고린도 후서 1:1-2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주목하게 하라.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디모데를 "형제"로 인사말에서 묘사했던 것을 설명하라. 바울이 의 다른 어떤 편지 보다 이 서신에서 가장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지적하라.

4. 좀 전에 써놓은 아웃라인을 함께 읽고 한 사람이 3-5절을 읽게 하라. 학습 공과에 '참고'에 나오는 "고난을 돌파하기" 부분을 참조하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각각의 설명에 동의하는지 질문하라. 또한 그 대답에 따라 왜 동의 하는지, 왜 동의 하지 않은지, 혹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질문하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질문을 하라; " 당신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 "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5. 한 사람이 6-7절을 읽게하라. 여기의 주제는 바울이 이 구절들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언급하라.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 받았던 그를 확인해서 바울이 복음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충성하고 그들의 고난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질문하라; 왜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인가, 아니면 비관적인 자세인가? 바울의 논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혹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a.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그가 받았던 고통을 이야기 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 b. 바울의 소망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는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고난을 나눈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위로를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6. 한 사람이 8-11절을 읽게 하라.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통들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 짐작을 할 수 있다. 고린도 전서 15:32; 고린도 후서 4:11; 11:23-29절을 각각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바울은 심하게 고통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것을 언급하라. 그는 정말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를 구하셨다. 그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느낄 정도로 마치 바울의 생명이 거의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인다. 질문하라:

- a. 이 구절에서 어떤 강점을, 혹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바울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가?
- b. 살 소망까지 끊어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해줄 것인가?

적용 격려

- 7. 학습공과에 나오는 질문을 참조하라. 반원들이 이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 8. 당신의 반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제 8 과]	얽힌 관계를 풀어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2장 1:12-2:1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 1:12-2:13</p>	<p>학습주제 얽힌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직함과 솔직함,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p> <p>탐구질문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얽힌 관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서두에서 특정 관점에 대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그는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믿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고린도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키면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인간적인 진실성을 공격했으며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말과 행동을 그의 사역과 사도로서의 그의 동기에 올무를 치는데 적절히 이용했다. 처음에 바울은 두 번의 짧은 고린도 방문계획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발표했지만 곧 그 일정을 변경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자마자 자신들을 속였다고 그를 비난했다. 바울은 1장 12절로 7장 16절에서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들에서 구제헌금을 모금했다. 그는 이 헌금을 사랑의 표시로 여겼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선교여행시 방문했던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의 서신들에서 이 헌금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6:1-4, 로마서 15:22-29). 사도행전 20장은 이 헌금을 가지고 돌아온 바울의 귀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헌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사사로이 헌금을 썼다하여 비난을 받았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장 15절에서 기록을 바로잡고 이 가치 있는 계획에 대해 식어져가는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노력했다.

이것은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힘과 명성, 그리고 동기는 고린도교회의 선교와 건강한 성장을 위태롭게 했다. 가장 설득력 있고 개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다.

본문해석

꺾어놓은 양심 (1:12-14)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므로 자신이 말을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18개월을 거기서 보냈다. 고린도에서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사도행전 18장 11절). 바울은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비록 바울이 멀리 떨어져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쓴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처사가 항상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의 비난이 잠시나마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여러 군데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는 바울의 경쟁자였던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다. 일부 교인들의 유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은 이 편지를 썼다.

계획을 변경한 바울(1:15-22)

1: 15-16. 원래 바울은 두 번의 짧은 고린도방문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먼저 예베소를 출발하여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장 16절)하고 그의 계획을 밝혔다. 아마도 그의 짧은 방문은 순조롭지 않았던 듯하다. 그는 그 힘들었던 방문에 대해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바울의 적들은 그의 이런 여행계획 변경을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심을 받았다. 만약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가르침과 설교까지도 믿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1:17.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주장들을 반박했다. 두 질문 모두 답은 강한 부정이었다. 여행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가 무능해서도 아니었고 그가 한 입을 가지고 두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의 교회방문 계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변경되었던 것 뿐이다.

1:18-20.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공격 목표가 자신이 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깎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의 여행일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원의 진수가 되는 본질을 바꾸고 거기에 율법주의를 필수요건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에 대응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와 성도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강조했다.

계획을 변경한 이유(1:23-2:4)

1:23-2:2. 바울은 여행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미 한 번 고린도를 힘들게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아직 다시 방문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무감각해서도 아니었고 필요할 때만 친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굴욕감과 당혹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들이 화해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2:3-4: 단회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방문 대신,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이 고린도전서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본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라고 말한다. 어쨌건 간에, 바울은 그들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아니다. 그는 본 서신의 끝부분에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후 13:2)고 말하고 있다.

환해의 필요(2:5-11)

2:5.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불화와 갈등이 생겼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람과 그의 공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은 지혜와 절제된 행동을 통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회복을 가져올 수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았다. 본 서신 전체를 볼 때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2:6-8 고린도 교회는 그를 처벌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 이후 바울은 교회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과 처벌을 최소화함으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촉구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9.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가 고린도교회에 두 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명심하라.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편지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도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경고 한다는 것을 들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이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린도전서와 본문의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2:10-11.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이 적대자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관계의 쓴 뿌리를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바울이 권위를 갖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감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또 다른 계획 변경(2:12-13)

바울은 그의 여행 일정에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문이 실패로 끝난 후(2:1),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 상황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여행하는 동안 디도를 만날 계획이었다. 바울은 이 해안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바울의 실망감은 컸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갔다. 그는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했다.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의 행동이 고린도 인들과 디도에 대한 또 다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바울은 자신이 슬그머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2:13)고 말한다. 그는 또한 드로아에서 자신을 환대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다.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필자와 계약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는 거의 누구나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과 그 관계는 회복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본문이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학습 인도

2.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이용해 본문을 설명한다.

3. 학습용공과의 개요를 칠판이나 게시판에 붙인다.

읽힌 관계를 풀어라

(고린도후서 1:12-2:13)

- a. 여행일정 변경(고후1:15-2:4)
- b. 한 개의 썩은 사과(고후 2:5-11)
- c. 드로아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고후 2:12-13)

4.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의 연설을 듣는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말 해 보도록 한다. 보통 어떤 경우에 여행 일정을 바꾸는지 물어본다.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한 것은 교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는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 모두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획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의 일정 변경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우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비춰졌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방문하기로 했던 사람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방문계획을 바꾼 적이 있었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그 일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물어본다.

5.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지 듣는다. 본문을 큰 소리로 읽은 후,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바울의 심적인 고통이 어땠는지를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얽힌 관계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며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적용격려

6. 학습용 공과의 질문에 대해 언급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큰 소리로 말해 보라고 한다.

7.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제프와 데이빗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는다.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끝에 제시된 질문을 한다.

8.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간섭 하시도록,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제 9 과]	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2장 2:17-3:6; 4:1-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 2:14-4:6</p>	<p>학습주제 기독교의 사역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p> <p>탐구질문 교회의 사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p> <p>학습목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평가했는지를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런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바울은 다가오는 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썼다. 18개월의 고린도 체류기간동안 그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행 18:11). 그의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떠난 후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바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의 사역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표현한대로 고통스럽고도 슬픈, 긴장으로 가득 찬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이었다.

세 번째 방문에 앞서, 바울은 시간을 절약하기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기 원했다. (1)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난을 고려한 여행일정 발표 (2) 기근에 시달리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모금 호소 (3) 사역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 하는 것이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Gnostics- 그리스어로 지식을 의미함)들과 유대교인들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진실된 신자들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셨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혼합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다기 보다는 지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교묘히 섞어 놓았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 에게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비록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지식과 유대인의 유전을 교회로 들여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진리를 수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강력히 반박하면서 자신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했다. 그 가르침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만을 변호한 것이 아니다. 그가 1인칭 복수 대명사(우리, 우리들)를 사용한 것은 그의 동역자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도 반대세력의 공격의 대상이었다.

본문해석

신실한 행동(3:1-3)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들”(고후 2:17)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그를 찾아왔다. 여기서 장사꾼이라는 말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의미이다.

진실한 사역을 분별하기(3:1-3)

3:1.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인가?”“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거짓교사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려 하였다.

3:2-3.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다. 고린도교인들이 바로 그의 추천서였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바울 사역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였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3:4-5)

바울은 그의 자신감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의 적들의

말과 행동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말은 바울의 말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다(3:6)

본문은 바울의 사역과 그의 적들의 하는 일을 확실한 대조를 통해 보여준다. 그의 사역은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새 언약이었다. 거짓 교사들의 하는 일은 율법에 근거한 옛 언약을 따르는 것이었다.” 율법에 근거한 구약은 원래 그리스도의 새 언약안에 있는 자유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준비단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비록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생명을 가져오는 도구도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기 시작 하셨고 바울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른 것이었다. 율법주의의 옛 언약을 따르는 것은 “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3:14)이었다. “ 그러나 그 때 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었다(3:15). 옛 언약은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오직 눈만가리울 뿐이었다. 모세는 쇠퇴한 율법을 통해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이었다.

옛 언약과는 반대로 “ 언제든지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3:16). 그리스도안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 결과는 완전한 변화(3:18)로 나타난다. 바울은 구원이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았다. 구원에 관한한 율법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안에있는 자유가 생명을 주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삶과 사역을 증거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정직하고 열린 마음 갖기(4:1-2)

4:1 바울은“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서 그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사람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준다. 바울은 그의 사역 방식을 설명한다. “ 사역”이라는 말은 “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영어에서 집사(deacon)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가져온 말이다. 바울은 자신의 임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 사역은 고통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통과 거절당함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조차도 헌신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4:2. 바울은 인기를 개의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반대에 직면해서도 용감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함(4:3-5)

4:3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영적인 무지는 확실히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본문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버리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지 하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것이다” 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4:4. 바울은 영적인 무지는 사탄의 활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탄을 “ 이 세상의 신” 이라고 부른다. 이는 바울이 사탄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속이는 능력이 그만큼 대단 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다는 것이다.

본문은 창세기 1:26절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형상이시다.

4:5.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그들의 말은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호객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스도의 빛에 초점을 맞추어(4:6)

바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1-3을 인용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사탄은 거짓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또한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어떻게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역을 위한 의미있는 지침: 교회와 성도들이 아래의 세 가지 성경적인 의무를 다 할 때 의미있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원리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아주 유용하다.

(1)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다.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가 한 모든 행동과 말과 그의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었다. 사역의 궁극적인 가치는 얼마나 돈을 모금하고, 얼마나 썼는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도 아니다. 효과적인 사역의 가치판단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초신자들도 불신자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

(2)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 성도를 위한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경적인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엡 4:12). 초신자들은 성경읽기 모임이나 연령별 교제 모임에 참여 할 수 있다.

(3) 나는 예수님의 세계를 위해 헌신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린도로 갔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해외 선교를 위해 이 일을 할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한다. 초신자들은 지역선교 프로그램이나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에는 지역교회들을 포함해서 구제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 만약 당신의 지역사회에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없다면 당신의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면 어떨겠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의 틀을 제공해 준다. 교회가 사역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사역자를 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역을 잘 못 이해한데서 오는 것이다. 어떤 스포츠 팀의 경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코치를 해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와는 다르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런 기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위의 세 가지 원리들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위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사역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되는 결과들: 성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새 신자가 오면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새 신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성경읽기와 기도하기
- * 예배드리기
- *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 * 봉사할 곳 찾기
- *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물을 드리기
- * 매년 선교여행에 참여하기
- *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기

바울이라면 이것을 “함당”하다고 하지 않고 “필수불가결”하다고 했을 것이다.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오늘의 임무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공의 몇 가지 정의들을 칠판에 쓴다. 오늘은 세상의 성공 기준과 다른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역평가기준을 공부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공부 인도

2.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사람”(2:17-3:6)의 처음 두 문단의 글을 인용해 바울과 그의 적들을 비교, 대조해 본다. 이 거짓 교사들과 몇 명의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에게는 뛰어난 마케팅 전략도 없었고 겸손했고 교사로서 그 어떤 권위도 없으며 달변가로도 비춰지지 않았다.)

3.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바울의 사역 기준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습용공과의“하나님의 보내신 신실한 사람들”(2:17-3:6)을 통해 바울의 사역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준다. 각 항목을 다 읽은 후 원하는 사람이 관련성구를 읽도록 한다. 그 항목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게 한 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4. 고린도후서 3:7-18과 학습용 공과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2:17-3:6)의 내용을 인용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해 준다. 새 언약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복음으로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해 보도록 한다.

5.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4:1-6을 읽는다. 학습용 공과의 “평범하고 정직한 사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고후 4:2)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토론한다.

6. 학생들이 “학습용공과”의 질문들에 답하도록 한다.

7. 이제, 다 함께 칠판에 쓰인 성공의 정의를 읽어본다. 이런 정의들이 복음사역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 본다. 만약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필요한 정의를 열거해 보라고 한다.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제 10 과]	영원한 안목으로 보는 삶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4: 7-5:1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 4:7-5:10</p>	<p>학습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포함한, 삶에 닥쳐오는 모든 도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승리하는 삶을 살기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p>

성경주해

배경이해

고린도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받고 답을 한 후, 교회에 남아있던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바울이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을 들어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는 당당하게 잘 쓰지만 막상 대면하면 말재주가 변변치 못하다고(고후10:10) 그를 비웃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고린도교인들에게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켰고 교회 또한 바울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육체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거의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말한다(4:2, 7; 12:5).

편지의 처음 세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대하온 태도가 바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에 쓰여진 편지가 있었기에 그에게는 사도로서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 비추었고, 예수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에게 주었으며 많은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본 과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은 인간에 지혜와 영광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도의 삶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성도에게 죽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역경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해석

우리의 질그릇(4:7-10)

4:7.“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적절한 표현이다(4:6). 싸고 쉽게 깨지는 도자기 형태의 등은 고린도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땅의 진흙으로 만든 이 연약한 등이 불을 비추는 도구였던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바울은 교회내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연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았다(10:1, 10; 11:16; 12:7). 그는 우리의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약하게 할 수도 변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써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자체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한다.

4:8-9.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 (죄어들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 박해를 당하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다)은 사실 전쟁에 관련된 말들이다. 이 단어들은 바울도 오늘날 우리처럼 그 당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바울은 영적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10:3-6).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는 죽을 만큼 아파보기도 했고 ,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11:24-29). 하지만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골로새서 2:13-15; 고린도후서 15).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기쁨(4:10-18)

4:10-11.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고통과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성도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성도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다(고후 12:9)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고뇌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겨우 금욕주의자들의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견해나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난 그 자체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 우리의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울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안에 있는 승리의 실체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현실인 것이다.

4:12 바울의 고난(끊임없는 죽음)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 부활의 능력”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도 빛과 소망을 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말로 “ 세상을 이기신” 것이다.

4:13.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 로 시작해서 “내가 여호와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16편을 인용하고 있다.

4:14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랑들은 영생을 약속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러진 바 되었다(고후 11:2; 엡 5:27; 골 1:22, 28; 유다서 24절을 보라).

4:15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심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볼 때 그의 기쁨은 차고 넘쳤다.

4:16-17 바울은 다시 1절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비록 자신이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선포한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가벼운” 그리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다. 물론 이 “문제들”이 피상적이고 쉽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바울은 짧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관한 약속을 비교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강건했다.

4:18.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뇌는 현실이지만, 잠시 잠깐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이 실제적인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그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5:1-10)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5:1. 바울은 우리의 몸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긴 하지만, 죽음 후에 갖게 될 영원한 몸(“천국에서의 영원한 집”)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원한 몸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받는 것이다.

5:2-5.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 그분의 영을 우리안에 주신다”(고후 1:22).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빌 1:21-23).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완벽한 성취를 앞당긴다(고후 1:22). “ 덧입기를” 이라는 말은 영혼의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는 몸이 없는 영혼이 아닌, 영원을 위해 준비된 변화된 몸인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옛 장막위에 새 장막을 덧입을 때, 우리의 몸이 순결하고 영생불멸할 존재로 덧입혀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 옛” 사람이“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고전 15:53; 롬 13:14; 갈 3:27; 계 7:9,14).

바울은 자신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다. 그는 “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전 15:50)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우리의 새 장막이 낡은 장막을 삼켜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낡은 장막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5절은 우리의 육신을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뜻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성령을 보내 증거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마서 8:14-17)임을 증거해 주신다.

5: 6-9. 바울의 이런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성령님의“ 보증”위에 기초를 둔 것이다(5:5). “ 몸 안에 머물러 있다” 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는 본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했다(“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망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감당 할 수 있게 는 동기가 되었다.

5:10 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엡 2:8,9),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후의 심판대는 피해 갈 수 없다. 이 “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한 사람씩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전 3:10-15).

교수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성인의 생각을 가지고 십대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다시 10대로 돌아간 당신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에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의 편지를 오늘 읽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성경공부 인도

2. 고린도후서 11:16-33절과 사도행전 16:19-34절의 내용을 통해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었음을 언급한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8-9절에서 사용한 “죄어들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 “박해를 당하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는 표현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는 “짓이김을 당하다” “절망에 빠지다” “버림받다” “파괴되다” 등의 좀 더 강렬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3. 칠판의 가운데 아래쪽에 선을 그리고 한 쪽에는 “일시적인 고난”을 다른 한 쪽에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쓴다. 학생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한 후 그들의 의견을 양쪽에 쓰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고난”의 아래에 두려움 이라고 쓸 수 있다. 또는 “영원한 영광” 밑에는 용기라고 쓸 수 있다. 더 많은 단어들을 생각해 보게 한 뒤 두 항목을 비교해보고 자신들의 삶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그들의 삶의 초점이 “일시적인 고난”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4. 학습용 공과에 있는 “구원의 역사”에 나오는 처음 두 문장과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통해 고린도후서 5:1-10절이 사후세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말해준다.

5. 본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와 학습용공과에 나오는 “부활의 역사”의 세 번째 문장을 이용해 영생에 관련하여(고후 5:6) 성령님의 보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준다. 속사람을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몸이 온전히 변화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6. 칠판에 지팡이 그림을 그린다. 학습용공과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 그 열매는 우리의 삶과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나열해보도록 한다 (사랑, 평화, 겸손, 등 갈라디아서 5:22-23을 보라). 이 모든 열매들을 당신이 그린 지팡이 주위에 적는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적용격려

7. 학습용공과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8. 삶에 닥쳐오는 난관들을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제 11과]	사역의 동기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5: 11-6: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 5:11-6:2</p>	<p>학습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이 사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p> <p>학습목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p>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문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그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신학적인 진리를 정의한다. 그는 하나님과(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어떤 댓가를 지불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시는 것 밖에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소멸하신 “구속”의 역사다(고린도후서 5:19).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위에 세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할 근본적인 동기이고 이유다.

14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성-죄악된 행위-을 위해 죽으셨음을 이미 알고 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고 섬기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다(고후 5:17). 구원의 역사와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것이며,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면 (분열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문해석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5:11-13)

5:11. 바울은 복음전도를 위해서 라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비방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필요를 느꼈기에 지속적으로 “ 성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를 위하는 순수한 열정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글을 썼다(5:10).

5:12. 바울은 자신의 말과 생활방식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로 가득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었다.“ 당신들은 나의 마음을 압니다. 나의 신실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난을 받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5:13. 바울의 적들은 그를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적인 사람으로 치부했다. 실제로 그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다(사도행전 9:2-9; 고린도후서 12:2-11).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만큼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 분별력이 있으며,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빌립보서 2: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5:14-16)

5:14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의 고린도교회를 위한 섬김과 사랑의 원동력이었다. 바울의 회심은 사람을 대하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줄 만큼 독특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빌립보서 1:21; 3:7-10)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신 사건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기꺼이 짊어지셨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또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표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5:15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들려야 한다.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다(갈라디아서 5:13-15).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 또한 주의해서 살펴보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 극적인 만남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

5:16.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자신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다(사도행전 9: 1-2).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원했던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고린도전서 1:12). 한 분파는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바울은 이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화해를 계획하신 하나님(5:17-6:2)

5:17. “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안에 거하며 하나님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성길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정을 받게된다. (에베소서 2:7-10; 4:24).

그리스도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을 닮은 “ 거듭 난” “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요한복음 3:3).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우주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계 21:5)

5:18-19.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화해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골로새서 1:15-20; 디모데전서 2:5; 요한복음 14:6; 사도행전 4:12).

바울은 하나님의 화해의 계획을 “ 사역”(고후 5:18)과 “말씀” (5:19)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해의 “말씀”이라함은 우리가 전에는 죄로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분리되어)있었음을 나타낸다(로마서 3:23). 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스스로에게도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하나님께서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응 하셨다. 그는 거룩하고 완전한 진노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 대응 하셨다.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은 서로 뿔래야 뿔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죄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죄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당신과 나의 죄)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었다.

바울의 화해“사역”은 이 구속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이 사역은 바울의 적들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그를 공격하고 교회를 거의 무너뜨릴 지경에 까지 이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화해의 사역을 향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고린도전서 9:16)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화해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20 “ 대사”또는“외교사절”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나라의 말과 입장을 상대국에 전하는 고위 관리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였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따라 평화의 사절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곧 그의 뜻이 되었다.

5:21.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자로 자신을 희생하셨다. 주의할 것은 바울이 예수께서 죄를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인간적인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바울은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 의롭다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과 “의롭다하심”은 신학적인 정확성과 실제적인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은 ,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할찌라도 , 육신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심을 받은” 것이다.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구원을 의미한다. 성화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의미한다. 영화(glorification)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나타낸다.

6:1-2.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한 한 지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귀에 겸손하게 들려졌다.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 헛되이” 취급하게 된다(마태복음 18: 21-35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보라). 고린도교회의 거짓교사들은 이런 점을 뺀(고후 11:4-6)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2장의 말씀(이사야 49:8을 보라) 은 바울이 교회가 바울의 인간적인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을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다(고린도전서 2:1-5).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후, 바울은 신속한 회개와 회복의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의 간절한 요청은 고린도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사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각자 자신 학교, 직장, 가정, 봉사활동,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질문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우리는 섬기기위해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8-9을보라). 오늘의 본문이 “ 왜 섬겨야하는가”는 질문에 답을 줄 것이라고 알려준다,

성경공부 인도

3. 한 사람을 정해 핵심본문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사역의 네 가지 동기들(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임박한 때)에 대해 주의 깊게 듣는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4.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를 인용해 고린도후서 5:11-13의 말씀을 설명해 준다. 이 구절의 의미와 사역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5:12)을 말해준다.

5.5:14-15을 큰 소리로 읽고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한다.

- *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는가(또는 나타내고 계신가)?
-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입증해 보이셨는가?
- *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것은 무엇인가?
- *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빌립보서 4:4-8; 골로새서 3:1-17;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12-22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 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한다.

6. 한 사람이 고린도 후서 5:16-21을 큰 소리로 읽는다. 학습용공과에 나온대로 성경은 공동체와, 교제, 그리고 관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도 바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안에서 서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다.

- *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 * 죄의 댓가는 무엇인가?
- * 화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 성경은 용서에 대해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가?(마태복음 6:12,14-15을 보라)
- * 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7. 사역의 최종적인 동기인 임박한 때에 대해 알아 보기위해 6:1-2을 읽는다. 아래의 토론 주제들을 읽는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을 아시고(시편 139:16),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다!
- *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여도 그것이 헛된 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야고보서 4:13-15)
- * 비록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지만, 시간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 * 지금이 바로 “ 구원의 날”이다(고후 6:2).

적용격려

8.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9. 학습용공과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한다. 큰 소리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 하도록 격려한다. 당신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당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10.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제12과]	주는 것에 부요한 자가 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8:1-15; 9:7-8;11-15</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8-9</p>	<p>학습주제 주님의 사업에 재정적인 자원을 후하게 드리도록 결정함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이유들</p> <p>탐구질문 당신의 재정적인 드림이 신약의 가르침과 얼마나 닮았는가?</p> <p>학습목표 재정적인 드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주님의 사업에 아낌없이 드리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전16).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다(로마서 15:25-26). 바울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대신하여 전달을 했다(사도행전 11:27-30).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걱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 2:10). 이런 약속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갑자기 닥친 가난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퍼졌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디아스포라) 비록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그랬다. 이방 크리스천들이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도 비슷한 영적인 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다(고전12:12, 25; 갈3:26-29).

바울이 이런 헌금을 부탁한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에 헌신한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된 예루

살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였다(행2:41,47). 수천 명 이상이 계속해서 개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개종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조상들의 믿음을 거절한 그들은 일하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자선에서 제외가 되어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했다. 가난과 차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었다(사도행전4:32-35).

이런 성경 구절들은 크리스천들의 후한 나눔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원리들은 믿는 자들을 후하게 나누게 되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본문해석

나눔 안에서 격려(8:1-7)

8:1-4. 바울의 시대에는 북쪽의 그리스를 마게도냐로 불렀다. 남쪽은 아카이아로 불렀다. 마게도냐 교회들은(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물질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드러서 크리스천의 후함의 모델이 되었다. 2절에서는 그들의 후함의 강력한 설명이 있다(“극한”, “넘치는”, “극심한”, “부한”). 3절에는 그들의 후함이 “힘에 지나도록” 드러났음이 확인이 된다(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치지는 못했지만).

4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에 참여함”은 마게도냐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사랑의 나눔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로 여겼다. 이들은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합류했다.

8:5 누구도 바울에게서 나누라고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들의 후함은 바울의 기대를 넘어 일어났다. 그들의 이타적인 드림의 행동은 그들이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다(마태복음6:33)

8:6 디도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시작하라는 교회에게 보낸 처음의 편지(바울의 권유) 전에 고린도에 도착했다(은혜의 행위). 당연히 그는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효과적인 중개자였고, 두 그룹 모두가 그를 완전히 신뢰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의 행위를 완성하라”고 독려했다.

8:7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나열하는 목록에 “드림의 은혜”를 더하라고 격려했다. 바울은 전에 교회에게 그들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영적인 선물들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고전1:5-6).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말로 “너희들이 모든 것에 풍부하되, 나누기에도 빨리하라” 격려하는 듯 하다.

예수님의 모범(8:8-9)

8:8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부탁 했다(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고린도인들의 헌금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나게 했다. 그들의 선물도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8:9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떠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이 땅에서 사셨다(빌립보서 2:5-11; 골로새서 1:15-20; 요한복음 1:1-3; 히브리서 1:3).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바울은 여기에서 신학적인 진리(바울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너희가..부요한 자가 되어). 고린도인들은 후함의 가장 높은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부요했다.

8:10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다. 크리스천의 후함은 신적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결과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7:12; 22:34-40; 로마서 13:9-10).

8:11 바울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아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무시한 데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처음에 시작을 잘한 것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었다. 바울은 “받을만한”(8:12)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물의 양은 그들의 진심이였다(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측정하셔야 한다).

8:12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나누어 주어야 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부치는 목표를 정함으로 크리스천의 영성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원”에 기뻐하신 것은 그들의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믿음의 분량의 특별함에 의미를 두신 것이다.

나눔에 동등함(8:13-15)

8:13 “동등함”의 단어는 “공평하게 대하다”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14절에 표현된 상호간에 유익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8:14 사랑을 기초한 상호간의 유익을 가져오는 원리는 나눔의 은혜에 받을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균형을 가지고 온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창고에 기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생각은 개인의 소유의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상호간에 사랑과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눔은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자원으로 되는 것이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갈라디아서 6:10). 바울은 회중이 전에 도움을 받았을 때를 가시화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데로 자유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기초한 상호간의 유익이다.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천으로 사역할 때에 진정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8:15 만나를 모으는 설명은(출애굽기16:18)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돌보심을 “동등”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만나를 모으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모은다. 그렇게 모든 개인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모을 수가 있다. 만나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드리는 것을 복돋아 줌(9:7-8)

9:7 바울은 크리스천의 후함에 못 미치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는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압력으로 드리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근심을 한다거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이런 드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실패하게 한다. 크리스천의 후함의 진정한 싸인은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즐겁게”라는 단어의 뜻은 “유쾌하게” 또는 “기분이 좋게”로 번역이 된다.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즐겁게 드리게 만들고, 크리스천의 드림은 기쁨을 만든다.

9:8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력과 반대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가능하게 하신 일을 고린도에서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위에 있으며, 고린도인들이 생각을 초월하신다(모든 은혜,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로 즐겁게 만드신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9:11-15)

9:11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인들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신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춘다. 마음에 후함에 풍성한 것은 벌써 선물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제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만들어냈다.

9:12 고린도인들의 드림은 최소한 두 가지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냈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바울은 교회에게 기억시키기를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어난 사역이라는 것이다.

9:13 만약에 고린도인이 충성했더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에 통과했을 것이다(자신을 증명하라)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으로 찬송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눔에 후함”을 짝지어 놓고 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바른 신학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야고보서 2:14-17)

고린도인의 후한 드림은 한가지 더 유익을 주는데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싸움이 많았던 초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다. 크리스천의 친절은 언제나 장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애물을 허물었다.

9:14 바울은 고린도인의 따듯한 친절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다. 고린도 크리스천들은 벌써 당파싸움과 연쟁으로 악명이 나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성숙한 회중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로서 증거가 됐다(로마서15:25-26).

9:15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은 가능한 모든 축복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셨다. “형용할 수 없는”(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 이 선물을 바울은 로마서 8:32절에서 놀랍게 그의 생각을 표현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교사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T.V 게임이나 리얼리티 쇼의 상세한 것을 나누도록 초대하라(무슨 게임인가? 진행자는 누구인가? 참가자는 어떻게 뽑는가? 등등). 몇 분 정도 시간을 주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을 무엇인가?
2. 몇 사람이 대답을 한 후에 질문하라. 이와 같은 쇼는 나눔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받는 것에 관한 것인가?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라, 삶은 나눔인가 아니면 받음인가? 이와 같은 공부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재정적인 근원을 어떻게 후하게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 인도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3. 한 사람에게 고린도후서 8:1-9절까지 읽도록 초대한다. 이 구절들은 드림은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

- * “은혜”의 뜻은 무엇인가?
- *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 *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 * 바울이 말한 3절의 “힘에 지나도록”이란 무슨 뜻인가?“
- * 4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드리는 자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무엇이었나? (“기뻐했다”)
- * 믿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나누기 전에 한 일은 무엇인가? (5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4. 9절을 다시 한 번 읽으라. 이 구절을 은혜의 예로 강조해 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림을 발견하게 하라. 당신은 이 구절을 다른 구절들과 함께 사용하라. 빌립보서 2:5-8; 골로새서 1:19-22; 로마서 5:8.

5. 고린도 교회가 드림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라. 고린도 후서 8:10-15절을 읽으면서 반원들에게 성경을 따르라고 말하라. 이 질문들을 토론을 위해서 사용하라:

- * 드림에 신실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증명해 주는가?
- * 드림은 지갑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가? 아니면 마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가? 과부의 동전 이야기나(막12:41-44), 하늘의 보화(마6:19-21),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마25)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가?

6. 자원자가 고린도후서 9:6-15절을 크게 읽도록 한다. 반원들에게 이 구절들을 들으며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울의 마음을 들으라고 권한다. 반원들이 이 두 질문에 크게 반응하도록 질문한다(차트에 아래의 질문들에 속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으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부족하게 뿌리는 자는 부족하게 거둔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당신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한다.
하나님은 넓게 뿌리신다.	우리는 모든 좋은 행위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의의 추수를 증가 시키신다.	우리는 순종과 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적용 격려

7. 아래의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질문 한다:

- *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는가?
- *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하게 대하셨는가?
-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실하셨는가?
-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는가?

8. 학습 공과에 나오는 질문들에 집중하라. 반원들에게 매일 다른 구절들을 선택해서 몇 분간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하라.

9. 기도로 마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13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고린도후서 12:1-1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고린도후서10:1-13:13</p>	<p>학습주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지 우리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p> <p>탐구질문 우리의 성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의미를 정의하 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경험을 확인하라</p>

성경주해

배경이해

고린도 안에 있었던 바울의 원수들은(“수퍼-사도”, 고린고후서 12:11) 바울의 인격이나 영적인 은사들이나 사역의 부르심이나 스승으로서 깊이나 리더로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지상의 대결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무기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꼭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고(가슴이 아픈 일) 바울의 현실이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20번 이상이나 “자랑하다”, “자랑했다”, “자랑” 사용하면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등했다. 그는 또한 그의 방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될까 느끼기도 했다. 바울은 이 부분의 편지를 “미련한 자의 말”로 특징을 짓고 있다(고린도 후서 11:21)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파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바울의 “미련한 연설”은 (11:1-12:13) 그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12:19). 그는 영적인 생동감이 종교의 무상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의 독자들은 그가 겸손하게,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의 내적인 싸움들을 느껴야 한다(10:1.17).

바울이 “미련한 연설”이라는 불리는 것을 쓴 이유는

- * 그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 * 그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 * 거짓 선지자를 꾸짖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 형편없는 신학과 실천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 * 교회는 자신들을 방어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 그는 미래의 분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 * 은혜의 파워가 언제나 강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인간의 성취를 뛰어 넘는 은혜의 위대함과 고린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본문해석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12:1-4)

12:1. 고린도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수퍼-사도”, 12:11)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 비전들과 계시들에 의의를 제기하는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사도의 신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임을 알았다(바울의 말). 진정한 사도의 신분을 대한 싸움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는 것이다. 바울의 환상들은 절대적으로 진실한 것들이었다(주님께로부터).

12:2-4 크리스천의 겸손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도 남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하도록 했다. 그의 겸손은 그를 끝없이 비방하는 바울의 방해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바울이 환상을 경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특별히 친밀한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 * 그의 회심의 경험(행 9장)
- *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황홀경(행 22:17; 갈1:18)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 *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계시”(갈 2장)
- * 마게도냐에서의 비전(행 16:9)
- * 고린도에서의 비전(행18:9)

우리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의 환상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대한 확실한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다.

바울이 “끌려서”, “셋째 하늘”이라는 뜻의 의미는 완전한 하늘나라의 경험이다. “낙원”(고후12:4)의 단어는 천국의 단어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다.

‘낙원’은 페르시아어로 공원 같은 울타리를 의미한다. 신약에서는 천국이 이 세상이 아닌 별들과 구름을 넘어서 있는 것이지만 천국 안에 다른 층들이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바울에게 영적인 에피소드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그 경험이 육체 안에서인지 영안에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울이 다만 이 세상 넘어서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3절에 바울은 에피소드의 사실성을 반복 한다(“나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의 천국의 환상은 그의 삶을 변화 시켰고, 그 경험은 어떤 말들로도 강한 영향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낙원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넘는 사실이었다.

70인역 성경에는(구약을 헬라어로) 에덴의 동산이 바로 낙원임을 제시한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지구의 낙원을 잃어버렸다. 바울은 천국을 새로운 에덴의 동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음을 제공했다(롬 5:12-16; 고전 15:45-49). 그 완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계시록7:9-17;22:1-5)

바울의 낙원의 경험은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울의 경험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특별히 한 사도에게만 속해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통 사람이 인내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가 개종 때부터 있었다(사도행전 9:16). 의심할 여지없이 이 계시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새롭게 했다.

억제의 목소리(12:5-6)

12:5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 사이의 우습고도 미성숙한 다툼을 자제하려 노력했다. 바울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어떤 인간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파위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서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기로 선택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12:6 고린도 안에 있었던 “수퍼 사도” 라는 자들은 바울의 경험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들을 부풀렸다. 그들의 요구는 거짓되고 미련한 것이어서 자신을 섬기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바울의 자랑은(그가 선택한 것) 최소한 정직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게임에서 그의 목소리를 자제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고전13:4)

은혜의 족함(12:7-9a)

12:7 우리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희미함이 바울의 고민들과 우리의 가시들을 연관시켜서 확인하도록 허용을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자주 일어나는 고민들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런 확신 안에서 고린도인에게 공개했다.

바울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

- * 심한 두통(갈4:13)
- * 역겨운 병환들(갈4:14)
- * 심한 안질(갈4:15;6:11;행9:9,18)
- * 간질 혹은 말라리아(고전2:3)
- * 연설의 억눌림(고전2:4)
- * 육체의 고문들(고후11:23-27)
- * 육체적인 유혹들(고후11:29)
- * 이스라엘의 불신(롬 9:1-3)
- *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한 후회(행 22:4,20)
- * 알렉산더 실버스미드(디모데후서 4:14-15)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라고 보냄을 받은 사단의 천사(메신저)라고 밝히고 있다. 바울은 그 고통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라 말한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영이 높아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12:8 그리스도는 겿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다(마26:36-46). 바울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갔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세 번이나 옮겨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때는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다.

12:9a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고린도인에게 보냈던 바울의 최고의 편지내용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기도를 드리면서(그가 말씀하시기를-이탈릭) ‘족하다’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지켜주시고 능력주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약함은(그의 육체의 가시)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확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완전은(결론지어짐) 바울의 불완전함 안에서 “온전하여” 졌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4:7-12;6:3-10;11:23-33)

그리스도의 능력(12:9a-10)

12:9b 그리스도의 응답인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유익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태도가 변하고 바울의 기도로 변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들에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랑할 수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파위가 그의 위에 “임하신” 것을 선포했다(헬라어로 성막으로 삼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의 증거를 주셨다(출애굽기25:8,9 40:34-35).

12:10 하나님의 파위는 인간의 약함(약한 그릇)에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즐거워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찾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는 벌써 바울을 십자가로 의롭게 하셨다. 바울은 그의 인간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았다. 바울의 능력은 그의 약함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다(고후4:7-10;6:4-10).

교사 계획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이야기로 시작하라: 한 친구가 나이가 많은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녀의 친구가 말하기를 “음. 잘 보이지도 않고, 왼쪽 다리는 굳어 있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관절 때문에 손을 잘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운전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해!”
2. 오늘에 핵심이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 속에 바울은 그의 병환이나 어려움이나 “나의 육체 안에 가시”의 문제까지도 나열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나열한 것은 그것들 안에 있는 영광이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라. 그가 그의 병환들과 우환들을 나열하고 축복의 예들을 사용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성경공부 인도

3. 토론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라(당신이 멤버들의 명단을 칠판 위에 써놓으라):
 - * 당신의 인생 중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는가?
 - *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깊게 염려하고 계신다는 축복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4. 학생용 공과 (학습 공과) 안에 있는 정보와 인도자 지침서 안에 “본문 해석”을 사용하여 고린도후서 10-11장을 준비하고 발표하라. 이 장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당신은 바울의 자랑들(축복들)과 바울의 어려움(고통)들을 비교하라.
 5. 반원 중에 한 명이 고린도후서 12:1-10을 크게 읽도록 초대하라. 하나님의 특권들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의 필요성을 파헤치라(12:1-6). 그리고 아래의 질문들을 하라.
 - * 바울이 자랑한 것들은 무엇인가? 왜 그는 자랑을 했는가?
 - * 당신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말했을까?
 - * 어떻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지 성취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가?
 - *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과 “낙원”은 무슨 뜻인가?
 6. 반원들에게 7-8절을 읽고 고통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격려하라. 멤버들로
-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인도자 지침서

아래의 문장들에 예/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초대하라:

- *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안다.
- * 지금까지 바울이 당했던 작은 어려움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헌신 때문이었다.
- * 하나님은 “사단의 메신저”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사용하신 것이다(예)
- *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안에 사는 것에 만족했다.

각 문장 후에 왜 반원들이 그렇게 답을 적었는지 나누도록 하라.

7. 반원들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족한 은혜를 생각하며 아래의 질문들을 토론하도록 하라(9-10절)

- *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했는가? 바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 * 바울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 *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8. 반원 중에 적어 놓았던 사람이 그의(그녀의) 족함의 간증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내한 것을 나누도록 한다.

9. 당신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잇는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라.

10.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마치라.